

# LED가로등기구 규격 표준안 제정

### 전주시, 9월부터 적합 제품 구매 설치 예정... 유지보수 비용 절감·안전적인 사후관리 기대

전주시가 거리에 설치되는 LED(발광 다이오드) 가로등의 성능과 모형 등에 대한 규격 표준안을 마련한다.

시는 LED 가로등과 LED 보안등의 주요 부품인 모듈, 전원공급컨버터, 커넥터 등의 성능과 모형을 하나로 통일한 '전주시 LED가로등기구 규격 표준안'을 제정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LED 가로등의 주요 부품이 생산 업체별로 제각각이어서 유지보수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소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절감 및 LED 조명등의 안전한 사후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했다.

LED 조명은 그동안 친환경·고효율의 장점에도 주요 부품이 생산 업체별로 달라 업체가 생산을 중단하거나 폐업할 경우 유지관리를 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LED 조명이 주요 부품 결함과 오작동 시 다른 업체 제품으로 호환이 되지 않아 LED 가로등기구 전체를 교체해야 해 많은 비용이 추가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교수 등 11명으로 전주시 LED 가로등 기구 규격 표준화 자문위

원회를 구성하고 모듈과 컨버터, 커넥터의 성능 및 규격을 검토해 규격 표준안을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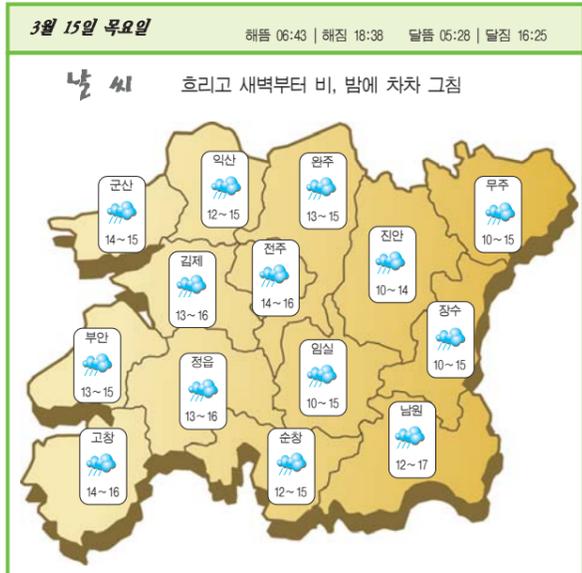
표준안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모듈의 경우 크기와 용량이 생산 업체별로 상이한 것을 크기는 규격화하고 LED 모듈의 종류는 정격정류(25W급)와 정격광속(700mA) 모듈을 활용한 조합형으로 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 규격화했다.

또한 모듈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용량이 다양했던 컨버터도 표준안을 통해 크기를 규격화하고 용량은 모듈 조

합과 일치하는 적정규격의 용량을 사용하도록 했다.

시는 생산업체의 제품개발과 공인인증기관 인증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정 고시 6개월 이후인 오는 9월부터 전주시 LED 가로등기구 규격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해 설치할 예정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LED 조명 생산업체를 비롯한 관련기관들이 전주시는 물론 대한민국 조명산업 성장을 위해 긴 안목으로 이번 LED 가로등 표준규격화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 전주시 작은도서관들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2000여만원 확보

전주시립도서관은 올해 전주지역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거점 조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와 전주시의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억 2000여 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인후동 '인후문화의집 작은도서관'과 평화동 '평화꿈틀 작은도서관' 등 2개 작은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 작은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작은도서관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파견 강사를 지원 받아 특강과 체험 활동, 인형극공연 등의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산림청 녹색복지 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돼 오는 4월부터 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장 공사 추진돼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삼천동 꿈드림 작은도서관과 한라비발디·미소플·반딧불 등 3개 사립 작은도서관은 올해 전주형 공동체 육성사업인 은두레 공동체 사업에 선정돼 총 1600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꿈드림작은도서관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미소플·반딧불 작은도서관은 계층별·분야별 문화강좌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라비발디 작은도서관은 텃밭 일구기와 단지주변 환경정비 등 주민이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전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형성의 거점으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책과 사람, 삶을 만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봄의 전령사 복수초 개화**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을 전해주는 야생화인 복수초와 너도비람꽃이 개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올해 봄꽃 개화는 작년보다 일주일 정도 빨리 개화를 시작했으며 5월까지 복수초, 너도비람꽃, 처녀치마, 모데미풀, 현호색 등 다양한 봄철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에 군산 현장체험학습 요청

### 전북교육청, 오늘 개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서... 군산경제 활성화 차원

전북도교육청이 15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군산과 전북에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을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GM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군산 경제상황에 보탬을 주자는 취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GM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전

북교육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군산·익산·전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방문 협조'를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도시는 초·중·고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대규모 숙박·음식점이 있고, 군산은 일제강점기 근대화 시간여행 1박2일, 2박3일 코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익산에도 미륵사지와 왕궁

리 유적지, 익산보석박물관을 갖추고 있고 전주는 한옥마을체험, 경기전, 전통시장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코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전북도의 협조를 얻어 버스 1대 당 전체 일정에 동행해 문화관광 해설이 가능한 전북수학여행 전담지도사 배정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 원광대, '플레이던트' 수업 도입

###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과목에... 협동·감성능력 키워

원광대학교가 올해 1학기부터 체험형 학습을 결합한 '플레이던트(Playdent)' 수업을 도입했다.

play(체험하다)와 student(학생)의 합성어로 '놀이요소가 가미된 재미 있는 수업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내포된 플레이던트 수업은 집단놀이 중심인 예체능과 인성 프로그램을 강화해 협동과 감성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돕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펼쳐도록 마련됐다.

2018학년도 신입생 교양필수 과목인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교과목에 우선 적용된 '플레이던트 수업'은 태권도, 배드민턴, 힐링댄스, 요가, 커뮤니케이션디자인, 합창, 캘리그래피 등 체험을 통한 실기 중심 수업과 인성 교육으로 상호 간 소통, 배

려, 협동심, 심리적 치유를 병행함으로써 자존감을 갖고, 문제해결 및 자신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업에 참여한 문수호(전기공학과 1년) 학생은 "대학생활과 자기혁신 교과목 첫 수업 장소가 관현악실로 돼 있어 의미했다"며, "수업 참여를 해 볼랐지만, 다른 학생들과 합창으로 어울리다 보니 친근감을 빨리 느낄 수 있어 소통하는데 좋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원광대는 올해는 캘리그래피와 태권도 등 예술과 체육 분야를 수업에 적용하고, 향후 인문계열에서도 가상·증강 현실을 도입해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체험하듯 등 점차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위원 위촉

전주시가 지역상권 상생협력을 위한 지역유통상생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시는 14일 대형마트와 SSM 등 대형유통기업 점장과 소상공인 대표, 전통시장상인회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가졌다.

지역유통상생위원회 구성은 시가 배정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성민 기자

통상생 협력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것으로 대형유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참여 대상이 대형마트와 SSM을 포함한 전주지역 대형유통기업 점장 모두를 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 향후 지역유통상생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또 대형유통업체의 올해 지역사회환원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 사항, 중소기업과의 상생방안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